

도-국교위, 지역발전 미래교육 방안 모색

미래교육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지자체·교육계 협치 중요성 '한 목소리'

전북도와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지역의 교육 현안을 파악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와 국교위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국교위 이배용 위원장 및 전북지역 대학 총장, 산업계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교육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래교육 현장소통 간담회는 학생인구 감소, 지방대 위기 등 교육 현안이 저출산·지방균형발전 등과 연계된 복합적인 과제임을 고려해 지역 현장과 소통하고 국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13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라북도-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관 미래교육현장소통 간담회에 김관영 도지사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및 도내 대학총장등 참석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간담회는 먼저 나혜수 교육소통협력국장이 민선8기 특화된 전북형 대학인재육성 방안에 대한 발표로 시작했다.

나 국장은 전북형 대학인재육성 방안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SD)를 통해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 실수요에 기반한 대학지원으로 인재양성-기업유치-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전북대 안오봉 총장(국립거점대), 전주대 박진배 총장(전북지역대학총협의회장), 전북과학대 이영준 총장(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이 전북지역 대학 위기와 활성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도내 대학 총장들은 "지역소멸과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

자체와 대학 간 연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는 전북도가 민선8기 들어 도교육청·대학이 함께 전북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는 도정 방향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교육전담부서인 교육협력추진단을 신설하고 '대학협력

팀'을 만들어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 추진하던 대학업무를 일원화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 초 자체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이해와 협력을 돕기 위해 도내 대학이 대학협력관을 도청에 파견해 지역 혁신사업(RIS)과 라이즈 공모 시 함께 대응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는 평가다.

금융데이터 혁신 아이디어 발굴

금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내달 25일까지 접수 누구나 참여·우수 5개 팀에... 상금 총 280만원 이상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 혁신기업을 육성하고자 '제3회 금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참가자를 4월 25일까지 모집한다.

'제3회 금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금융 데이터 활용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금융 창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신청지역은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아이디어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출품하고자 하는 신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성과물 제출시에는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https://data.nps.or.kr/service>)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해야 한다.

경진대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독창성, 실현가능성, 데이터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5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5팀에는 총 28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며, 차년도 금융 빅데이터 스타트업 활력지원 사업 참여에 가점이 부여되고 창업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https://cei.creativek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 단속

전북도, 이달 말일까지 70곳 대상 실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위생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품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단속대상은 과자류, 빵류 등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70여 개소다.

중점 단속사항은 △제조가공실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유용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비위생적 식재료 사용 여부 △안전경관 등 개인위생관

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등이다.

위반사항은 즉시 현장 계도와 교육을 진행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제발방지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허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된 식품의 경우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대상"이라며,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도,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차량 선착순 모집

12인승 이하비사업용 휘발유·경유·LPG차량 총 2239대 지원... 주행거리 절감시연 최대 10만 원 지급

전북도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차량을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량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휘발유, 경유, LPG 승용·승합차량이며, 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도는 올해 더 많은 도민이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 2,239대의 참여 차량을 모집한다. 이는 지

난해 1.925대 보다 15% 늘어난 규모다.

인센티브는 차량 등록일로부터의 누적 일 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참여 기간 누적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량을 산정한 다음, 감축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http://car.cpoint.or.kr>)에 가입하고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는 URI에 접속해 자동차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가입이 승인되며 추가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빠른 참여 신청이 중요하다.

한편 전북도는 가정 및 상가에서 에너지 사용을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지

급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중이다. 시기 제한 없이 탄소포인트 누리집 접속(<http://cpoint.or.kr>) 또는 해당 시·군에 문의해 가입할 수 있다.

2022년의 경우 탄소포인트제는 8만 5,000가구에 총 14억1,800만 원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1,127대에 총 8,0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복지국장은 "전북도 온실가스 배출원은 에너지 분야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와 탄소포인트제에 많은 도민들이 동참해 주셔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병무청 병역이야기 공모 6월 30일까지 접수

전북지방병무청에선 병역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이야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병역이야기 공모전은 올해 다섯번째로 병역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공모전 기간은 지난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병무청 누리집 내의 '공모전 누리집'(www.mm4090.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병역이행에 피소, 병역이행 모범사례 및 응원, 공정 병역 사회복무 등 병역 전반에 대한 이야기 등을 다룬다. 여기에 공모전은 영상과 웹툰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 모든 작품은 '순수 창작물'에 한해서다. /김영태 기자

도내 전통시장 특별 화재안전점검 실시

전북도는 잇따른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해 도내 전통시장 5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화재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해 10월 대구 매천시장,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벽 화재(전통시장 아케이드 유사 소재)에, 3월 5일 발생한 인천 현대시장 방화사건 등 지속적인 화재 발생으로 높아진 상인·이용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것이다.

전통시장 특별 화재 안전점검은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도·시군·소방서·상인회 합동으로 진행된다. 시장 내 설치된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점검과 함께 추가 설치시설을 파악하고 점검결과 문제사항 발생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예정이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화재에 대비하고, 시장 상인분들도 자율적인 안전점검을 생활화하는 등 화재 예방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